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웹파티

김영철O
OO유한대학교 스마트콘텐츠학과 모바일앱전공
e-mail: kim0725@yuhan.ac.krO

Web Party

Young-Chul KimO
ODept. of Smart Contents(Mobile App Major), Yuhan University

● 요 약 ●

본 작품은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작품이다. 본 작품은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된 현재의 코로나19 시대에 알맞은 비대면 파티를 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이다. 즉, 지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서로 대면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인데, 현재의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수행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친구간, 가족간, 지인간, 연인간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파티를 진행할 수 있는 웹파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파티를 더 확장하면 군대에 가 있는 친구나 해외에 이민간 친구, 또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이에게 적용할 수 있다.

키워드: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웹파티(Web Party), 코로나19(Corona 19)

I.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시대

[코로나블루, 집콕, 줌바밍(zoombombing), “휴식도 일도 집에서 ’한몸‘ 뉴노멀’, 코로나가 바꾼 노동환경, 재택근무] 등 이 모든 단어는 코로나19가 만든 신조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피로감이 쌓이면서 정신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로,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 활동 제약으로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스트레스, 불안감,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실정이다[1].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주거와 교통에 대한 당국의 이른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생활 전반의 모양새가 바뀔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도 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거교통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또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인 이태원, 홍대와 강남을 중심으로 발달된 클럽문화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여가활동의 중심이되었고, 더불어 발전한 파티문화는 그 화려함과 일상에의 파격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게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파티를 컨셉으로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파티를 사업 전개에 중요한 아이템 또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많은 업종들이 나온 것은 오늘날 파티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코로나19시대는 이러한 확산 문화가 가장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다.

본 작품은 이러한 비대면 시대의 기념일을 웹상에서 구현하여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축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개발 방법

본 작품은 다음과 같이 비대면 파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Fig. 2. Web Party Storyboard

Fig. 3. Process of Implementation

III. 구현

-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 :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파티** : 대면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닌 비대면 가상으로 하는 파티이므로 어색할 수 있다.
- **웹에서 파티란 상상불가** : 먹고, 즐기는 물리적인 파티에 적응되어 웹에서 파티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 **스마트한 세상** : 점점 스마트 폰이늘어나면서 SNS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지인과의 소통이 쉽고 간단해졌다.

Fig. 4. Web Party

우리는 주변에서 시간적, 거리적 제한으로 인해 기념일을 챙길 수 없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웹에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샘플 스킨에 고객이 내용물을 직접 꾸미고,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프티콘을 이용하여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선물을 고르고, 사러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웹파티 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부터 오던 습관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지인의 기념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활용 방안이 있다.

- 군대간 친구, 연인과의 모임, 기념일
- 멀리 있어서 혹은 시간이 맞지 않는 친구와의 생일파티
- 가벼운 모임을 갖고 싶을 때
- 이벤트를 해주고 싶지만 너무 바쁜 친구or연인에게

REFERENCES

[1] “지쳐가는 사회... ‘코로나 블루’ 심리상담”, NEWSIS, 2020. 6.5. available at https://newsis.com/view